

자율적인 관리체제유도에 주력하겠다

■ 편집부



* 조병환청장 *

'41년 서울출생
연세대 화공학과 졸업
미국웨인주립대학교 졸업(화공학박사)
前,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Energy
and Env. Systems Div. 근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대기관리연구실장
환경청 대기보전국장 · 수질보전국장
환경청 광주환경지청장 · 부산환경지청장
現, 환경처 서울지방환경청장

본 회보는 신년호 발간에 즈음하여, 서울지방환경청 조병환청장과 본 연합회 경기지역 5개 협의회 회장단과의 특별좌담을 마련, 새해의 환경정책 및 지도단속방향에 대해 들었다.

일시 : 1990년 12월 21일
장소 : 서울지방환경청 청장실
참석 : 조병환(서울지방환경청장)

이상호 <경기 협의회 회장>
장희산 <서울 " >
유문하 <인천 " >
박수제 <경기북부 " >
유영관 <경기서부 " >

이상호회장 :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임은 신미년을 맞아, 저희 경인지역 5개협의회와 밀접한 서울지방환경청의 '91년도 환경정책 및 지도단속방향에 대한 말씀을 초청장님께 듣고 향후 협의회 활동의 지침을 얻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환경정책에 큰 획을 긋는 해였다고 봅니다. 우선 '91년도의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말씀부터 해 주시죠.

조병환청장 : 먼저 여러 회장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동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로 새로운 기술향상·습득을 하고 각종 환경보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활동상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년초에 환경청이 '처'로 승격되고, '환경원년'을 선포하는 등 환경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본 지방청도 지청에서 지방청으로 되면서 분위기도 일신됐고 인원이나 업무면에서도 규모가 확대됐지요.

'91년도의 환경정책은 크게 2개의 과제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풍토조성이요, 둘째로는 보고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환경개선 입니다.

이에따라 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의 환경행정 그리고 종합체계적인 환경관리 기반구축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집중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장희산회장 : 방금 배출업소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집중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도단속보다도 기술지도나 계몽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91년도 환경청의 지도단속방향은 어떻습니까?

조병환청장 : '91년도 지도단속은 자율적인 관리기반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90년도엔 대우·기아·쌍용자동차등 3개 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환경전담부서 설치확대및 승격을 유도하고 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게끔 했지요.

이들 대기업산하엔 여러 협력업체가 있으니, 1차협력업체는 모기업이, 2차 협력업체는 1차협력 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하여 협력업체 단위별로 자율관리체계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와함께 무허가나 방지시설 비가동업소에 개선 납품도 받지말라고 했습니다.

이 체제를 '91년도부터 1종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기업이 관심을 가지면 환경전담부서가 승격화되고 인원도 증원되니 결과적으로 관리인들의 지위도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호회장 :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1종 사업장뿐만아니마 2,3종 사업장에게도 환경전담부서가 설치될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20년을 근무해도 만년대리로 머물러 승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급기야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전담부서설치를 권유하는 '공문'보다는 부서장을 불러 교육을 하는등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문하회장 : 저 역시 이회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인천협의회 회원들의 동정을 보더라도, 10년이상 경력자들의 이직이 많아졌습니다. 승진도 잘 안되고 기업내에서 인정을 못받는데다, 빈번한 단속을 받으면서 관리인들만 다치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거죠. 물론 관리인의 실수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당연한 것이지만, 미미한 일들로 사표를 쓰는 관리인들의 소식을 접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 조병환청장

“
 '91년도에는 오염원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배출업소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협력업체 단위별로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유도하려 합니다.
 ”

유영관회장 : 환경오염문제는 지도단속만으로
 근절이 안됩니다. 국민의 확고한 환경의식없인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저희들 자랑같지만, 솔직히 관리인들의 수준
 은 높이 향상됐는데, 간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한다든가 기업의 환경관리방향에 대해 개
 진하든가 하는 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주
 의 교육문제는 분명히 시켜줘야한다고 봅니다.

박수제회장 : 기업주애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만,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여타 지역보다도 문제
 가 많은 지역입니다. 국토토지이용관리법에 따
 른 문제나 도청과 환경청간의 행정대립도 많고
 요.

조병환청장 : 일전에 북부쪽으로 직접 나가봤
 지만, 정말로 그 지역은 문제가 많더군요. 아까
 무허가등 비정상가동업소에게선 납품도 받지
 말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북부와
 같은 문제지역 및 문제 예상지역에도 주·야간
 순회점검 및 상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입
 니다.

점검방법도 배출구 위주점검에서 공정조사방
 법으로 개선할것이고, 이와함께 기술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도
 병행해 나갈 것 입니다.

장희산회장 : 점검애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하루에 3번 점검나오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줄
 압니다. 관리인들은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
 는데, 환경청, 시·도, 검찰청에서 계속해 점검나
 오면 업무에도 지장이 많고 그야말로 초죽음이
 됩니다.

유문하회장 :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는걸로 알
 고 있지만,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이 발족한 11월
 엔 그런 경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일전에 관리인
 들도 직접 단속을 해보야 단속하는 입장도 알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 협의회, 시청, 구청,
 보건연구소가 합동으로 주, 야간 단속을 해
 봤는데 그때 어느 업소에 나가니 그런 호소를 하
 더군요.

피상적이거나 그런 경험으로 인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리인과 단속반, 양측을 경험할 수 있었죠.

조병환청장 : 환경청이 단속을 나갈 경우 본처와 사전에 일정을 맞기 때문에 그런일은 드뭅니다. 또한 우리청의 지도과 직원이 80명인데 비해 관할업체는 4천8백개니, 1년내내라도 1업소에 2번이상 점검나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때 보니까 그곳은 소위 inspector가 자신의 관할업소에 2-3일에 1번씩 나가는걸 봤어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때에 따라선 여러 기관과 당국에서 중복단속을 하므로써 업체의 불만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모든것이 금수강산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제회장 : 지금 여러분께서 단속기관의 일관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의 분리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병환청장 : 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의 일원화냐, 이원화냐간에 각기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91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관련법규에서는 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이 일원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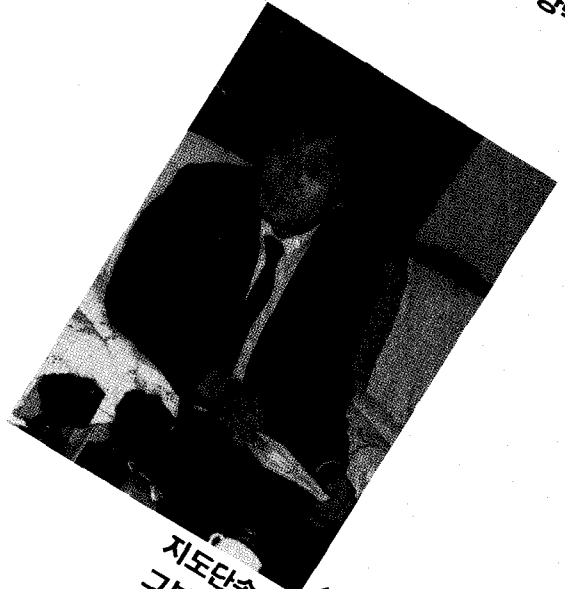
유영관회장 : 이 말씀도 단속기관의 일관성 문제와 맥을 같이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관리인들은 동일업소에 대해 내려지는 여러 단속기관들의 상이한 평가와 기업의 환경문제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양벌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조병환청장 : 위반업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은 환경보전법의 처분기준에 근거를 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양벌규정 또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니만큼 여러분께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정상가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이상호회장

전담부서설치를 권유하
'공문'보단 부서장을
교육하는 등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장화산회장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지도나
계몽이 선행되어야...



▲ 유문하회장



▲ 유영관회장



▲ 박수제회장

시와 합동단속을 하면서 빈번한 단속을 호소하는 업체의 고충과, 단속하는 입장 등 양측을 경험했다.

국민의 확고한 환경의식이 수반돼야 현재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

단속기관의 일관성 문제와 함께 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의 분리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제회장 : '90년도엔 폐기물 처리문제로 곤란을 겪은 업체가 많았습니다. 현재 김포위생매립장이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조병환청장 : 매립장이 절대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 비춰볼때 그 처리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압니다. 하지만 김포위생매립장이 조성되면 매립지 부족문제는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에서는 공정개선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지도 및 재생가능물질의 재자원화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감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산업폐기물의 복수전표관리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추적관리도 강화하는 등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

리에도 주력할 것 입니다.

이상호회장 : 청장님, 오랜시간 저희 관리인들의 현안문제에 대해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활동방향에 대한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병환청장 :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여러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참 보기좋아요.

저의 바램은 연합회가 정부와 관리인들간의 교량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행사가 있으시면 한가족처럼 저희 직원들을 초대해주시고요. —웃음—

아무쪼록 기술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동 : 신미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